주안에 News InChrist

11

1천여개 도시락 '정성 듬뿍, 감사 듬뿍'

주안에 News InChrist

10

참된 리더의 자세로 '재헌신' 다짐

주안에 News InChrist

08

'아들, 넌 내게 과분한 선물이었어'

주안에 News InChrist

06

반가움과 기쁨 '성전 가득히'

주안에 News InChrist

05

'6-6-2021' See you Again!

주안에 News InChrist

07

섬김 · 기쁨 · 열기 '주안에 큰잔치'

■ 2021 송년특집호

세어보아라 이 은혜, 이 복을 Thank You God!

주안에 News InChrist

09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59명 장학생 선발

주안에 News InChrist

04

반가운 만남, 예배의 기쁨 '충만'

주안에 News InChrist

03

감사와 기쁨, 찬양이 향기처럼

주안에 News InChrist

02

첫 성경암송 38명 참가 성황

주안에 News InChrist

01

'새해엔… 힘써 여호와를 알자!'

주안에 News InChrist

12

'그래도 감사해!'

주안에 News InChrist

주 . 안 . 에 . 교 . 회 . 뉴 . 스 . 레 . 터 .

InChrist CommunityChurch

Dec. 2021
Vol.9 No.12

■ 주안에 10대뉴스
■ 안놀고 뭐하니
■ 교육부 / EM 소식
■ 간증 / 기고

주안에교회 InChrist Community Church ph. 818.363.5887 I 문서국 e-mail: icccnews123@gmail.com I web: icccla.org

밸리채플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 OC채플 2351 W Orangethorpe Ave, Fullerton, CA 92833

■ 2022 새해 표어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증명하라

최혁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2022년도 주제 말씀은 마 22:37-40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입니다.

표어는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증명하라" 입니다.

여기서 이웃을 크게 둘로 나누면 첫째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둘째는 아직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직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사랑은 전도와 선교로 나타나고, 그리스도인에 대한 사랑은 교회를 사랑함으로 나타납니다. 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이웃사랑이요 그 연결이 하나님 사랑인가 하면, 교회는 원어로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믿는 사람들 즉 교회이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무척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즉 성경의 핵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요 그 증명이 이웃사랑이라면, 교회를 사랑하고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삶의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주안에교회 성도님들이 2022년 한 해를 말씀을 듣고 깨닫고 감동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더욱 말씀의 핵심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이 땅에서 연출하기를 원합니다.

'은혜로운 말씀, 행복한 한가족'

■ 밸리채플 주안에만남

지난 12월 6일 제21차 주안에만남이 밸리채플에서 있었다.

20여 명의 주안에 새 식구들을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새가족국 에서는 국장을 비롯한 돌봄이들이 정성껏 준비한 맛있는 스테이크 정식요리를 대접해 드렸다. 주안에교회는 개척 8년 역사와 목회 철학으로는 주님이 주인 된 교회, 하나님이 주인 된 교회, 반석 같은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세워진 교회라고 목사님이 소개하였다.

또한, 섬김의 자세에 대해서도 자세히 가르쳐 주셨다. 우리의 섬김은 하나님께 향한 것이요 나에게 그 믿음 허락하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면 되는 것이다. 우리 인생의 발자국마다 하나님의 이름만 남겨야 하며 나의 이름은 흔적조차 없어져야 한다는 짧은 가르침에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감동을 하는 모습들을 보였다.

식사 후 자신을 소개하는 시간에는 재미있는 일화들이 참 많았다. 발렌시아에 사는 박웅기 집사는 1년에 8개월씩 알래스카 지역으로 출장 다니는 커다란 배의 선장인데, 오랜만에 집에 돌아오니 주안에교회에 등록이 되어있어 졸지에 따라 왔다고 해 웃음을 자아냈다.

김정우 집사는 코네티컷에서 이곳으로 이사를 한 후 교회를 찾다가 우연히 눈에 띈 십자가를 보고 들어왔는데 설교 말씀이 너무 좋아 등록 후 한 번도 결석한 일이 없다고 고백하였다.

특히 12지구 John Lee 시의원의 어머님이신 이수잔 성도님은 아드님 선거운동 하느라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인 교회마다 찾아다녔다고 한다. 밸리에 있는 교회는 다 찾아다니며 선거운동과 함께 매 주일 설교를 듣고는 주일 저녁마다 각 교회의 주일설교 말씀을 아들과 함께 비교·분석한 결과 주안에교회 설교가 뽑혔다고 하여 우리 모두를 다시 한번 웃게 만들어 주셨다.

특히 이번 주안에 만남 21기는 평생 처음 신앙생활 시작하신 분이 많이 계셔서 더욱 더 감사하는 만남의 시간이 되었다.

| 임용자 기자 |

밸리25목장

밸리8목장

주안에교회 '허리 그룹' 삼겹줄처럼 든든히

■ EM, 코람데오, 영커플 연말잔치

예고에 없던 겨울 폭풍으로 추위가 기승을 부리던 지난 12월 18일 주안에교회의 EM 과 영커플 그리고 코람데오 청년부, 세 그룹의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신나게 운동도 하고 교제도 나누는 놀이 한마당이 열렸다.

담당 국장님과 여러분의 권사님들께서 준비해 주신 맛난 음식으로는, 각자의 입맛에 맞게 만들어 먹는 셀프 불고기버거, 떡볶이, 치킨, 어묵탕, 이외의 간식들, 그리고 후식으로 예쁘게 장식된 과일 등이 차려졌으며 이렇듯 완벽한 삼박자를 갖춘 먹거리는 신나게 뛰어도 지치지 않는 에너지를 보충하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또한, EM 국장이신 로라박 집사님과 영커플의 신욱 형제님의 노련한 진행으로 이어진 게임 순서는 그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의 흥미를 북돋아 주기도 했다.

처음으로 마련된 세 그룹이 함께하는 자리였지만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어서 매우 익숙하고 정겨운 모습으로 끝까지 함께 했음에 박수를 보내며, 좋은 만남의 시간이 내년에도 계속되기를 바래본다.

| 오희경 기자 |

하루 13시간 말씀과 찬양… 학부모들 사랑 듬뿍

■ ICY 수련회

코비드 상황과 오미크론이 심각한 상황이지만, 작년에도 ICY 수련회가 없었기 때문에 올해에는 미룰 수 없어 교회에서 수련회를 3일간 12월 21일부터 23일까지 아침 8시부터 시작해서 하루 13시간 이상 되는 스케줄로 진행했다.

이성우 전도사님은 수련회 3주 전부터 부모님과 리더들에게 토요일 새벽기도에 나와 기도하자고 하며 기도로 먼저 준비했고, 아이들에게는 백신 접종서를 확인하고 4일 전에 참가자, 리더, 그리고 봉사자 모두 코비드 테스트를 함으로써 철저히 준비했다.

85명의 학생□과 EM 리더가 어우러져 EM 리더들이 준비한 찬양 인도로 뜨거운 찬양과 기도 시간을 가졌다. 이성우 전도사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터(Firm Foundation)가 되시고, 말씀을 듣고 행동에 옮기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임을 나누었다. 또한 우리는 한 몸이고 그 몸이 튼튼하기 위해 터 위에 세워져야 하고 이웃을 돌아보는 ICY가 되자고 나누었다.

골든벨 퀴즈, 올림픽, 연극 등을 함께 준비하며, 더욱 주안에서 하나 되는 시간을 가졌다. 박탐 집사님이 세미나를 준비해 주셔서, 젊은 세대에게 지금 나이 때의 현실과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것의 중요성을 삶으로 몸소 예를 들어주시며, 도전을 주셨다. 또한 혹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선포해주셨다. 그리고, 최혁 목사님은 첫째날 산타 모자를 쓰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을 들고 깜짝 방문하셔서 응원해 주셨다.

교회에서 진행하는 수련회이지만 조금 더 특별하기를 바라는 리더들이 성가대 연습실을 크리스마스 데코와 라이팅으로 분위기를 바꾸고 특별한 추억으로 남을 수 있도록 했다. 산타 양말을 걸어두고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하는 편지를 써서 서로의 마음도 나눴다.

OC 채플에서 오신 분 중에는 다른 아이들 라이드까지 해서 오시느라 아침에 1시간 40분 걸리신 분, 교회 근처에다 호텔을 얻고 이틀을 지내신 분도 있다

아이들을 생각해서 새벽기도 후 화장실 청소를 해주신 집사님, 장로님들도 계셨다.

그리고, 3일 아침, 점심, 저녁을 준비하고, 정리해주신 PSG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학부모님들을 통해 아이들은 맛있는 식사를 대접받고, 사랑을 느꼈을 것이다.

| 류명수 기자 |

■ 2021 주안에 10대뉴스

코로나 속에서도 말씀훈련 · 선교 활발

성경암송 주안에셰마장학금 수여식

지난 9월 9일 저녁 7시30분 밸리채플에서는 뜻깊은 행사가 있었다. 주안에셰마장학회 성경암송 장학금 수여 감사예배가 열린 것이다. 지난해 11월 주안에교회 유년부부터 대학부까지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첫 성경암송 대장정을 시작해 10개월만에 총59명의 학생들이 각자 암송 실적과 학년 기준에 따라 장학금을 받게 되었다. 금년 제3기 주안에 장학회는 35명의 장학위원들이 모아 주신 기금으로 총 4만 5,650달러의 장학금을 기부했다.

대면예배 재개

1년하고도 1개월, 코로나는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 우리의 일상은 물론, 생각까지도. 철저히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예배와 사역, 나눔과 친교, 교회 공동체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끼며 기다렸다. 드디어 재개된 대면예배, 아직은 마스크를 벗지 못하고, 서로 손 잡기도 주저하고, 낯선 사람들처럼 널찍하게 떨어져 앉아야 하는 '반쪽' 대면예배지만 성전에 함께 모였다는 사실이 좋았고 감사했다.

주안에놀러와

팬데믹으로 성전예배가 중단된 지 15여개월 성도들이 다시 교회뜰을 밟으며 마음껏 찬양하며 경배를 올려 드린 후 열린 축제의 시간… 할아버지 할머니 손자 손녀까지 3대가 모두 하나되어 마음껏 목청높여 응원하며 22가지의 음식과 풍성한 먹거리가 즐거움을 더했다. 긴 여름 해가 지면서 보름달까지 떠오르는 저녁시간 분수대 주위에 앉아 온 성도가 함께 찬양하며 은혜로운 마무리 시간을 가진 후 미국 독립기념 불꽃놀이까지 함께 즐겼다.

멕시코 선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국경이 봉쇄된 가운데 거의 1년반 소규모로 진행되던 멕시코 선교사역이 다시 활기차게 펼쳐지기 시작했다. 12명으로 구성된 멕시코선교팀(팀장: 윤종화장로) 은 지난 11월 14일부터 5박6일간 기존의 루디 로페즈 목사님이 사역하는 산비센테에서 남쪽으로 10시간 더 내려간 비즈까이노 지역에서 현지선교팀과 합류해 깜포 노동자들과 가족들을 대상으로 전도와 구제 봉사활동을 펼쳐 많은 열매를 거두고 돌아왔다.

온라인 예배와 평사원 훈련

온라인예배 라는 새로운 형식의 예배가 힘든 시기를 이겨나가게 될 수단이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었다. 예배에 이어서 평사원의 훈련까지도 zoom 이라는 매개체를 통하여 집에서도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훈련을 받고 나눔을 할 수 있었기에 그나마 나약해진 마음을, 믿음으로 지켜가는데 큰 역할을 해 주었다. 우리가 불평을 하고 있던 순간에도 지켜보고만 계셨던 하나님의 계획과 예비하심을 실감하면서 이제는 그 분께 모든 걸 의지하고 맡기며 순종만 해야하지 않을까 다짐하게 된다.

■ 2021 주안에 10대뉴스

대면예배 감격 · 섬김의 잔치 추억 생생

대면예배 재개와 한달간 잔치

6월 15일 부터 시작된 대면예배의 재개는 14개월 이상을 성전에 발걸음하지 못하던 성도들에게 환희와 반가움으로 다가왔다. 권사회에서는 한 달 동안 매주 주일예배 후 성도들에게 대접할 점심식사를 준비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특별히 BP채플(지금은 OC 채플) 권사님들은 먼 거리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토요일부터 달려오셔서 최상의 음식을 만들어 내시느라 무더위를 느낄 겨를도 없었으며, 대면예배의 시작과 함께 섬김과 감사라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주었다.

EM 부흥과 감사절 대접

대면예배가 멈춰지고 온라인 예배로 대신 예배가 드려지는 동안에도 EM의 성장은 멈추지를 않았다. 대면예배가 시작된 이후에는 오후 1시 30분에 EM 예배를 드리면서 담임목사님의 말씀을 영어자막으로 내보내며 말씀의 이해를 도우려 노력하고 있으며, 지난 추수감사주일에는 지금껏 받은 사랑을 나누고픈 마음에서 양쪽채플 전 교인들께 점심 도시락을 손수 만들어서 서빙을 했다.

리더훈련

2022년 주안에교회의 목장을 이끌어갈 목자들과 작은목자들을 위한 리더훈련이 지난 10월에 옥스나드에 위치한 ‘ Residence Inn by Marriott” 에서 1 박 2일동안 진행되었다. 지금까지 해왔던 훈련의 틀을 벗어나서 “놀자” 라는 주제로 편안한 분위기에서 영화감상도 하고 느낀점들을 토론을 할때는 어느 훈련보다도 진지한 나눔의 시간을 갖기도 했다.

해외선교사 및 목회자 지원 확대

팬데믹 기간에도 주안에교회 해외협력선교와 목회자 돕기 사역이 확대되고 있다. 기존 멕시코와 세네갈에 이어 니카라과와 캄보디아 네팔 사우디를 추가 총 6개국 7명의 선교사를 지원하게 되었다. 또한 한국 내 생활고 속에서 목회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담임목사와 부사역자 5명을 선정하여 매달 후원하는 ‘우리목사님 돕기‘운동도 시작했다.

OC 채플 이전

대면예배가 재개되면서 MP 채플에서 예배를 드리던 성도들은 선택에 따라 밸리채플로 옮겨가신 분들이 계셨고 거리관계상 부에나팍에 가까이 거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임시처소로 부에나팍 채플을 마련해서 예배를 드렸으나, 교육관 사용이나 부엌 사용 등등 불편함이 많아서 조건에 합당한 장소를 찾던 중 플러튼에 위치한 감리교단 소속의 건물인 지금의 OC 채플을 허락해 주셔서 10월에 감사한 마음으로 입당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 Reflections: Why not Play?

I was so happy…

Shannon Kang

If I'm honest I had no intention of going to the event [Why Not Play?]. I made excuses for myself saying, "I have work", "I'll be physically tired and might not be able to do well at work", and so on. However, both my parents and my sister decided to go, so I thought that I should go even if it's just for the beginning.

When I got there it was a little bit awkward for me because I was overwhelmed by the amount of people there. On top of that I didn't know many people so I felt really alone. But, when the event started everything changed. The overwhelming feeling of shyness and awkwardness disappeared, and what was left was the love of God's community being poured out onto me.

All these people that I didn't know made me feel so welcomed and loved. As we were playing the games, seeing the huge community of ICCC's EM, Coram Deo, and Young Couples was a great sight to see. All of God's people coming together to not just play games but to get to know one another and to actually be ONE community was amazing.

At the end of the day I was so happy to have gone to this event because it not only brought me out of my shell but it also made me realize that ICCC is one body of God's people. A body that can gather, learn from one another, pour out love onto each other, but most of all worship and lift praises up to God together.

Making Mandu and Creating Wave Energy~

■ Heart for Missions

"Hi family- This Saturday 9am-5pm is EM Mandu making extravaganza for missions fundraising: Show your heart, come be part!"

This lyrical invitation to ICCC EM members generated a wave energy in tune with God's heart for missions. God visibly demonstrated the principle of wave energy in Pastor Choi's Christmas sermon by sending a wave energy of His scale to ICCC. The result? Jesus moved the hearts of many to joyfully uphold the Great Commission on Christmas Lord's Day this year.

A small wave energy was started with EM members once again having gathered in the kitchen on a Saturday with sleeves rolled up. Deja vu? This time, members labored from morning until evening making, steaming, cooling, packaging, and freezing approximately 3,200 handmade mandus made with Pastor Kim's very own mouth-watering recipe.

ICCC as a church came together with one heart as elders, deacons, and crowds of congregants poured out of the main sanctuary after the second service. A line began to form at the mandu sale stand- "I'll take two bags, and can I have four bags?" The precooked, ready-to-eat beef mandus were SOLD OUT in just 15 minutes! What was even more moving was seeing our elderly model giving donations even when there was no more mandu left for them to take home.

At $10 per 20 count bag of 100% beef pre-cooked mandus, the combined wave energy generated through ICCC's community raised well over $1,400 in just a quarter of an hour. The proceeds in entirety will go directly to ICCC's missions funds to support the missions expansion underway for 2022. This wave energy will continue to ripple across to all nations and to the ends of the earth in the hands of God Almighty.

| Monica Kim |

■ Was that the fire of God?

In one section at the Park's backyard were members reenacting the sermon points of an "Amen Faith." At the grill, Pastor Kim was grilling a galbi feast especially for EM as a celebration of ICCC EM's growing heart of loving on others. God must have been pleased by the aroma - both EM's sacrifice and the galbi. Thought it looked like fire from heaven!

■ 안놀고 뭐하니/ 참가자 소감

서먹서먹하던 팀원들 게임 통해 금방 친구

장웬디 성도(아가페 영커플) 이번에 마련되었던 프로그램 "안 놀고 뭐하니?"를 통해 여러 청년들 그리고 아가페(영커플) 들과의 교제 속에서 참 즐거웠고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나이도 다르고 서로 처음 보는 얼굴들도 있었지만 재밌고 알찬 프로그램 덕분에 금세 친해지고 또 아무래도 우리 교회 목원들이라 더욱더 가족처럼 느껴져서 좋았습니다. 정성과 수고가 많이 보였던 음식들과 처음 보는 과일 장식은 너무 예쁘고 맛있었습니다. 아기자기한 데코레이션으로 사진도 예쁘게 찍고, 또 놀고 싶습니다!

안혜준 성도(코람데오) 12월 18일 안 놀고 뭐하니 행사에 참석해서 밸리와 OC 채플의 청년들과 영커플, EM 이 모두 모여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서로 다른 소그룹에 있지만 주안에교회라는 큰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 안에 함께 속해 있는 걸 더 느낄 수 있었고, 다같이 섞여 얘기하고 게임도 하면서 많이 웃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코람데오 청년으로 참석했는데 많은 어른과 리더분들이 준비하고 섬겨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2021년이 가기 전에 또 하나의 좋은 추억이 생긴 것 같아 행복합니다.

정병욱 성도(코람데오) Why Not Play는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사람들과 함께 몸을 움직이며 게임을 했었는지 정말 오랜만인 거 같습니다. 거기다 팬데믹으로 인해 오랫동안 집과 직장만 반복하며 외로웠던 저에게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모두 함께 모든 것을 잊고 즐겁게 지낼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해주시고 섬겨주신 모든 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시간과 상황이 허락한다면 주안에서 형제자매분들이 함께할 수 있는 이벤트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정 성도(코람데오) 안 놀고 뭐하니는 오랜만에 로고스, 코람데오, 영커플이 한자리에 모여 찬양하며 게임을 하며 교제 나눌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다른 채플 소속이거나 다른 부서여서 서로 교제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많지가 않았었지만, 이 시간을 통해 서로 알아가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더욱 감사한 건 안 놀고 뭐하니 준비과정을 통해 우리가 한 공동체이고 한 교회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안 놀고 뭐하니를 몇 달 전부터 기획하신 분들과, 은혜로운 찬양을 인도해 준 찬양팀과, 데코팀과 셋업팀과, 맛깔스러운 음식을 준비해주신 분들과, 기도로 준비해주신 많은 분들이 한마음으로 협동해서 긍정의 파동이 이루어지는 걸 보니 감사함이 더해졌습니다. 그 파동의 결과로 한해를 감사함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주안에교회 파동의 에너지가 더 힘입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려지길 기도합니다.

■ IC 해피 교사 간증/ 박민주 집사(밸리)

기회의 자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주안에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지도 거의 2년이 되어가고 있다. 매주 목사님을 통해서 풍성한 영의 양식을 공급받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성령님의 임재하신 예배를 경험하며 매주 나의 믿음의 근육이 강건해짐을 느끼고 있다. 받은 은혜가 크심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항상 마음의 빚진 자처럼 하나님께 작은 것이라도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교회 안에 속하여 봉사하며 섬기길 마음에 품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있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섬겨야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중 어떤 분의 권유로 해피반에서 봉사해보라고 연락을 받았다.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이 전화를 끊자마자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었다. 남편과 다투면서 봉사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에 여기는 아니라고 생각하며 거절을 했다. 하지만 못한다고는 안 하고 생각해보겠다고 했다.

늦은 나이에 결혼해 어렵게 아이가 생기니 얼마나 욕심이 나는지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없고 남편과 손발을 맞추어 온갖 세상적인 방법으로 아이를 아침부터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며 아이를 묶어서 사춘기까지 왔다는 그런 아이와 날마다 전쟁을 치르는 현실을 보며 말씀과 기도로 키우지 못한 것이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날마다 회개와 후회를 반복하며 마음의 쓰라림을 겪고 있는 중인 나를 보며 당연히 자격이 없음을 인정하며 거절을 했다.

그러나 "기도해보세요" 하시던 전도사님의 소리가 생각이 나서 기도를 시작했고 "하나님 사실 저는 자격이 없네요. 다른사람을 찾아보셔야겠어요" 하는데 갑자기 마음에 뜨거운 소리로 "너 한번 해보지 그래. 네가 뭘 잘못했는지 알고 있으니 예수님이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긴 것처럼 너도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하게 여겨보라" 하는 마음이 들었다.

또한 아이들을 맡겨놓고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부모님들을 보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마음이 들었다. 그런 생각에 내 마음 또한 기쁨이 넘치기 시작했다. 나 역시도 우리 아이를 아가반에 맡기고 집중하며 편하게 예배를 드린 기억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하니 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일일까 하는 마음이 들기도 했다. 성령님이 용기도 주시고 격려를 해주시는 것 같았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아시면서 기회를 주신 것 하나님께 감사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하길 결정했다.

해피반 학부모님들 아이들 맡겨주세요

12월 첫째 주부터 해피반(만 2세~3.5세) 아이들이 부모님과 떨어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부모님과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는 IC Joy(3.5세~Pre-K)와 함께 예배드리고 부모님들 역시 아이들을 맡기고 온전히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한 10명 정도 되는 아이들을 케어 하기 위해 4분의 집사님, 권사님들이 새로 선생님으로 봉사해 주십니다. 2세부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부모님들도 유모차를 밀고, 아이를 안고 예배를 드리며 예배에 집중할 수 없었는데, 예배시간 만이라도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과 교회에 감사드립니다. | 류명수 기자 |

밸리 · OC 채플 권사회 '예수님 생일떡 많이 드세요'

12월 19일은 성탄감사 예배로 드려진 주일이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충분히 기뻐하고 즐기기에는 아직 시기가 이르고 그렇다고 예배만 드리고 돌아서 버리기에는 아쉬움이 너무 커서 양 쪽 채플 권사회에서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하신 음식을 나누어 주셨다.

밸리채플은 제2권사회에서 맛있는 콩떡과 절편 도시락을 나누어 주셨고 OC채플 역시 약밥, 송편, 콩떡 도시락과 아이들에게는 예쁜 샌드위치를 준비해 주셨다. 함께 교제할 공간이 허락되진 않았지만 권사님표 도시락을 손에 쥐고 돌아서는 발걸음에서는 한 발 한 발 감사함의 흔적이 묻어나고 있었다.

■ 코람데오 연말파티

풍성한 식탁 따뜻한 만남

12월 11일 토요일, 청년들이 준비한 청년을 위한 크리스마스 파티.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사랑이셔서, 올해도 달란트가 넘치는 청년들로 함께 하게 하시고, 부족한 우리에게도 넘치는 은혜와 관심 속에 남 부러울 만큼 예쁘고 화려한 분위기 속에서, 각자 열심히 준비한 것들로 퍼즐 맞추듯 약속 시간 3시에 맞춰 척척 채워갔다.

백순대볶음, 시원한 어묵탕, 매콤달콤 떡볶이 & 김말이, 새우와 마늘의 환상 궁합인 감바스 & 바게트 빵, 캐더링 외에도 케빈 & 애슐리 집사님께서 준비해주신 양념 & 프라이드 치킨, 오승현 목사님께서 준비해주신 소시지 떡꼬치 & 특제 매콤 소스. 거기에 과일과 마카롱 및 각종 디저트들, 바나나 푸딩을 만들어 온 제니 양의 솜씨가 더해져 풍성히 식탁을 채워주었다.

식사 속 못한 대화를 나누며 화기애애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식사가 끝날 무렵 2021년 한 해 동안 열심히 코람데오와 함께 해주시고, 든든한 서포터로 섬겨주신 케빈 & 애슐리 집사님을 향한 소정의 선물 증정식과 함께 단체 축복송이 방 가득 울려 퍼졌다. 함께였기에 감사했고, 더욱 귀하게 쓰임 받아 가시는 그 곳에서도, 더욱더 값진 열매를 맺길 바래 보며 서로를 응원하였다.

드디어 시작된 메인 이벤트 시간인 게임의 시간. 오씨 채플과 밸리 채플의 연합 파티였기에, 더 가깝고 잘 알 수 있도록 준비된 청년 이름 빙고 게임을 시작으로, 서로의 이름과 얼굴을 익히는 시간을 가졌으며, 길고 긴 3주의 시간을 들여 다양한 주제들로 꽉꽉 채워진 OX 퀴즈와 상식 퀴즈들로 그 다음을 이어갔다. 엎치락뒤치락 박빙의 승부 가운데 최고의 스코어 TOP 3가 정해지고, 준비된 게임별로 주어지는 상품들과 선물들로 매 순간 긴장감속에서 즐거운 웃음소리가 넘쳐났으며, 마지막에는 각자 준비한 선물 교환 시간 속, 기쁨과 함께 오늘 모든 시간의 감사함이 서로를 격려하며, 모든 청년 입가의 미소로 훈훈하게 정리되는 시간이 되었다.

모든 상황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선물임을 기억하고, 당연한 듯 지나치는 것이 아닌 사랑의 표현으로 항상 주께 나아와 기도로 대화하며 보고하고, 의지하며 신뢰하는 2022년의 코람데오가 될 것을 믿으며 오늘과 같이 하나되고 연합하여 내년을 하나님 앞에서 모두 행하는 'Coram Deo'가 되길 희망한다.

| 안세진 성도 |

■ 목자일기(OC 드림목장)

기도와 감사의 파동에너지

OC채플에 드림 목장이 새로이 조직되었다. 요엘에 보면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란 구절이 있다. 여기서 연령이 다른 두 집단의 역할을 설명 할 때 저자는 '자녀'에 대비되는 말로 '노인'을 쓰지 않고 '늙은이'를 선택한 것이 참 절묘하다 생각된다. 노인 하면 왠지 근엄하고 접근이 쉽지 않은 어감인데 늙은이는 좀 친근감이 들기 때문이다.

또 하나 기발한 것은 주안에교회 목장을 조직할 때 70세 이상인 분들로 구성된 목장에 '늙은이목장' 대신 '드림(DREAM)목장'이란 이름을 붙인 것이다. 얼마나 멋쟁이 이름인가. 마치 미국 농구 국가대표팀의 이름을 'DREAM TEAM'이라 부르는 것같이. 에너지와 열정의 상징인 그들의 이름에 드림을 붙였다. 그런데 우리 드림목장에는 그들보다 더욱 강한 에너지가 있다. 바로 기도의 파동에너지, 감사의 파동에너지, 긍정의 파동에너지가 있는 것이다. 드림목장의 이 에너지들이 하나님의 파동에너지와 공조가 되면 무한한 큰 역사가 이뤄질 것을 믿는다.

OC채플 드림목장이 첫 목장 모임을 비록 7명의 목원으로 시작했지만, 희망과 기쁨을 함께 갖는 이유인 것이다.

| 나형철 기자 |

■ 요게벳이 되어주세요

0세~만 2세까지 아기들 봐드려요

IC KIDZ에서는 0세 부터 만 2세 미만 아기들의 공동체인 IC LOVE 자녀를 양육하는 영커플들이 양육의 부담을 잠시나마 덜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배려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2세 미만의 자녀들을 돌보는 선생님은 특별히 모세의 어머니의 이름인 "요게벳" 으로 칭하고 있다. IC LOVE 자녀들이 요게벳 선생님으로부터 예배와 믿음을 배우고 부모님들이 자신의 예배에 성공하게 하는 것이 이 사역의 목적이다.

현재는 양윤석, 이선민 집사님 부부가 요게벳으로 IC LOVE 아기들을 섬겨주고 계신다. 새해에는 IC LOVE 아기들을 돌보아 주실 요게벳이 더 많이 준비되어 아기들로 부터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를 바란다.

| 이정미 전도사 |

■ 한 해를 돌아보며

가장 힘들었던 성탄절

꼭 1년 전 12월 23일, 전날에 받았던 Covid-19테스트 결과를 통보받는 날이었다. 이메일을 열어보고 우리 부부 모두 양성이란 결과를 확인하는 순간 멍해져서 얼마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나는 2~3일 동안 열이 나며 두통이 있었지만 아무 증상이 없었던 아내까지 양성인 것이었다. 다음날 우리 가족의 발병 사실을 목자님이 교회에 보고하시고 최혁 담임목사님께서 문병 전화를 주셨다. 그리고 심방을 오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을 때 "감사합니다 목사님, 오셔서 기도해 주세요"란 대답을 바로 드리고 싶었다. 그런데 순간적으로 우리 교인들은 어떻게 하나 목사님은 혼자가 아니신데 만일 목사님께 힘든 일이 생기면 그 많은 성도들을 누가 보호할까 하는 생각이 퍼뜩 들게 되어 목사님의 심방을 정중히 사양하고 전화를 통하여 기도해 주실 것을 요청드렸다.

그 후부터 고열과 전신 근육통 외에 호흡 곤란 증세가 나타났다. 누워도 불편하고 앉아 있기도 힘들어서 서성이다 눕기를 반복하였다. 그날이 성탄절인데 감사기도 보다 고통을 호소하고 완화를 간구하는 기도만 지속하였다. 그 때까지는 내가 대학 1학년 시절에 폐렴이 발병하여 고열과 호흡곤란으로 겪었던 고통이 제일 힘들었던 것으로 내 기억에 각인되어 있었는데 이번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고통에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였다. 정말 죽을 것 같이 아팠다는 표현이 지나치지 않을 것 같다.

그런데 아내가 같은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도 끝까지 무증상이 되어 나를 간호해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심을 감사하고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다.

12월 28일 월요일 드디어 나에게 하나님은 치유의 역사를 시작하셨다. 가까이 지내는 집사님이 알려주셔서 UCLA 메디컬센터 응급실에 입원할 수 있었고 응급실 담당의사였던 그 집사님 조카분의 도움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특효제로 개발되어 3상 임상 실험 중이던 '레제네런' 이란 주사약으로 치료를 받게 되었다. 한 번에 4시간이 소요되는 정맥

주사를 2번 맞고 다음 날 아침 퇴원하였다. 전날 입원 당시 고열로 떨리고 그렇게나 괴롭히던 근육통이 견딜 만큼 호전되었다. 그런데 퇴원한 그 날도 호흡곤란은 여전했고 저녁 9시가 지나 너무 호흡이 힘들어 늦은 시간임에도 최혁 목사님께 연락 드려 전화로 기도를 받기도 하였다. 그 후 호흡이 점차 원활해지고 각종 통증도 완화되었다. 식욕도 조금씩 회복되어 투병기간에 평소 140파운드이던 체중이 130파운드로 줄었었는데 많이 증가하게 되었다.

마침내 2주 후 COVID-19 검사를 받게 되었고 우리 부부 모두 음성판정을 받았다.

이번 코로나 감염과 회복을 경험하면서 의료인들의 손을 도구 삼아 치료하시고, 주의 종의 기도를 통하여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사랑을 분명히 보았고 확신하게 됨을 고백하게 된다. 담임목사님을 위시한 여러 교역자님들의 기도와 도우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알게 모르게 여러 교우님들께서 저희의 쾌차와 회복을 위해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심을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일 년이 지난 지금 지난해 성탄절을 생각하면 감사의 기도와 눈물만 나온다. 그때 못했던 기도를 마음껏 하면서 다음 3가지를 하나님께 다짐 한다.

* 우리와 함께하시는 노엘의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 우리를 위해 인간의 형상으로 오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고통을 깨달으려 노력하며 * 나에게 베푸신 사랑을 본받아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사랑을 나누며 살 수 있기를 기원 합니다.

| 나형철 기자 |

■ 선교사 편지

네팔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네팔에서 8년 5개월째 사역하고 있는 이세정,이경희 선교사입니다. 네팔은 힌두교를 국교로 인정하고 있던 유일한 국가로서 인도와 함께 대표적인 힌두교 국가입니다. 인구의 약 87%는 힌두교를 믿습니다. 기독교는 2015년 지진 후에 신자들이 조금씩 늘어서 현재 4%정도 보고 있습니다. 네팔은 삼면이 인도와 접하고 있고 다른 한쪽은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저희는 미국 1세 이민자로서 아들 셋과 시카고에서 36년 동안 살다가 주님의 부르심에 도저히 거역할 수 없는 사건을 만나고 모든 것을 정리하고 신대원에 들어가 목사가 되고 선교사로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네팔에서 사역은

1) 오랜 세월동안 힌두에 젖어 있는 네팔사람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고(이미 다섯 교회 세움) 시골의 가난한 교회 사역자를 돕고 있습니다.

2) 아직 힌두에 젖어 있지 않은 어린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기독교 사립학교에서 양육하는 것입니다. 2013년에 우리 집에서 8명을 먹이고 입히면서 시작했습니다.

기도 제목은: 네팔이 자유롭게 복음 전도할 수 있도록. 많은 영적 지도자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고아원 아이들이 신앙으로 영적으로 잘 성장해서 네팔 복음화에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모든분들께 임하길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세정, 이경희 올림

■ I AM 을 시작하며

설렘과 기쁨으로 순종의 첫걸음

이제형 집사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안에교회를 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시키시며, 주님 안에서 나의 존재를 깨닫게 하시고, 꿈을 꾸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찬양 올려 드립니다.

모태신앙이었던 부모님 따라 교회를 다녔고, 중학교 수련회에서 선교사의 말씀을 듣고 뜨거운 감동을 받아 하나님께 서원을 하였습니다.

대학교에서 음악 지휘를 시작하며, 하나님을 위한 아름다운 음악을 하겠노라고 고백하며 시작하였습니다. 공부하는 기간이 쉽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박사까지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지나보면 처음에 하나님께 했던 고백과 공부하며 나름의 세상 욕심이 서로 싸웠던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교회 성가대며, 오케스트라 지휘를 하며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하지 않는 나를 보여주셨습니다. 나의 생각, 욕심으로 했던 지휘 자리에서 내려오며, 하나님 안에서 상실을 경험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Burn out 이라는 이유로 내려놓았지만, 감사하지 못했던 나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몇 년 동안 그 자리를 허락치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주안에교회로 인도하셔서 저를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의 현재 모습을 보여 주시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시며 회개를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는 음악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음악을 하길 원하신다는 마음을 주시며, 예전에 하나님께 서원했던 마음을 말씀 중에 깨우쳐 주셨습니다. 진짜 봉사가 무엇인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음악인으로서 지휘는 직업이 아닌 봉사이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자는 하나님께서 다 채우심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동안 공부를 하며 세상의 인식의 거울을 비췄던 저를 하나님 인식의 거울로 비춰주신 겁니다. 마음 속에 하나님 때를 기다리던 중에 목사님의 권유로 Youth choir를 말씀 듣고 또 다른 길을 가려고 합니다. 오케스트라를 꿈꾸고 있었는데, 야곱 말년에 요셉이 두 아들을 축복기도 중 둘째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들어 축복할 때. 요셉은 첫째가 아니라며 야곱에게 말할 때. 야곱은 안다고 하며 그 뜻대로 행할새 요셉이 순종하듯,,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설렘과 기쁨으로 순종하며 갑니다.

"I AM" 은 I am Melody로 온전히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2세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 찬양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섬기는 그룹입니다. 더 나아가 주변 community 에 소금, 빛이 되는 것이 vision 임을 주셨습니다. 겸손함으로 부족하지만, I AM 을 통해서 아이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고 기다려 주는 것을 감당하려 합니다.

음악을 가르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은 쉽지 않음을 알고 계속 기도하며 기쁨으로 감당하며 소망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 음악 칼럼/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전쟁도 멈추게 한 평화의 선율

1914년 7월 28일 시작된 제1차 세계대전. 국지전으로 끝날 것 같던 전투는 확전되어 유럽 전체를 화염으로 뒤덮었다. 개전 초반 파죽지세로 진격하던 독일군은 마른(Marne) 전투에서 연합군에 패배했고, 이후 전쟁은 전선을 사이에 두고 어느 쪽도 상대방을 제압하지 못하며 소모적인 살상을 이어가는 지구전으로 흘러갔다.

어느덧 시간은 5개월이 지나 12월 24일이 되었고, 독일군과 영국-프랑스 연합군은 벨기에의 이프르(Ypres) 지역에서 참호를 파고 지근거리에서 대치 중이었다. 포화 속에서도 각국의 병사들은 조촐하게 크리스마스이브를 기념했는데, 독일군 진영에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의 선율이 흘러나와 전장에 울려퍼졌다. 이 노래는 영국-프랑스 연합군의 귀에도 들렸고, 멜로디를 따라 흥얼거리던 그들은 자국의 민요와 성가 등을 불러 화답했다. 서로의 감정이 통했음을 느낀 장병들은 참호에서 나와 크리스마스 하루만이라도 전쟁을 멈추기로 합의한다. 이들은 중간지대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서로 음식을 나누고, 죽어간 동료의 시체를 묻어주며 잠시나마 전쟁을 잊고 휴식을 가졌다. 이 합의는 지휘부가 명령한 것이 아니라 최일선의 장병들 사이에서 암묵적으로 이뤄진 것이었고, 'Christmas Truce' 라는 제목으로 신문에 대서특필 되기도 했다.

Daily Mail
CHRISTMAS TRUCE AT FRONT
STORY TOLD IN LETTERS FROM THE TRENCHES TO DAILY MAIL
SNOWBALLS AND JOKES WITH THE FOE
'Silver Shred' Lemon Marmalade
Bill-posting gun: Inventors' ideas in 1914

고요한 밤, 거룩한 밤(Stille Nacht, heilige nacht)이라는 노래가 탄생한 곳은 오스트리아의 오베른도르프(Obern-dorf)라는 작은 마을이다. 1818년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성 니콜라우스 성당의 사제였던 요제프 모어는 성탄 미사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그러나 성당의 오르간이 고장 나게 되고, 화려하고 장엄한 미사를 준비했던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되었다. 그는 급히 자신이 지어뒀던 시를 오르가니스트였던 프란츠 그루버에게 주며 작곡을 부탁했고, 그루버가 하루 만에 완성한 곡이 바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다. 오르간을 사용할 수 없어 기타 반주에 맞춰 소박하게 연주했던 이 곡은 성도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고 갈채를 받았다.

오스트리아를 넘어 독일에서까지 인기를 얻게 된 이 곡은 1859년에 영어로 번역된 후, 2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130종류의 언어로 번역되고 193개 버전으로 편곡되어 세계 각지로 퍼져나갔다. 한국에서는 1931년 장로교와 감리교가 합동 발행한 '신정찬송가'를 통해 널리 보급되었다. 원곡은 6절의 가사로 이뤄져 있는데, 현재는 개정된 4절 가사의 곡으로 정립되었다. 천주교의 가사 번역이 원곡에 더 가까우나, 개신교 찬송가를 통해 널리 보급되었기 때문에 찬송가 가사가 대중에게 더 친숙하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은, 2011년 유네스코에 의해 오스트리아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이 곡에 대한 오스트리아인들의 애정은 대단해서 고요한 밤 협회라는 단체가 운영될 정도이다. 이 곡이 처음 연주되었던 성 니콜라우스 성당은 홍수로 인해 철거되었고, 지금은 그 자리에 '고요한 밤 성당(Stille Nacht Kapelle)' 이라고 이름 붙여진 작은 기념성당이 세워져 세계인을 맞이하고 있다.

| 황성남 집사 |

■ 송년호 후기

2021년을 돌아보며

2021년은 우리에게 어떻게 기억될까? 주안에 10대 뉴스를 정리하면서 되짚어 보았다. 어느정도 팬데믹의 혼란에서 안정으로 향하는 과도기 속에서 여전히 안도와 불안의 반복이 아니었나 싶었다.

백신의 보급으로 일상의 회복을 꿈꾸다보면 또다시 출현하는 델타나 오미크론 같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어두워지는 마음을, 그리고 점점 약해져가는 믿음을 다스려야 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세상적으로는 점점더 강력해지는 범죄율과, 물류대란, 치솟는 물가상승, 부동산 가격폭등 등등 좋은소식은 접하기가 힘들었던게 사실이다.

그 와중에 시작된 대면예배는 답답했던 마음을 오아시스처럼 트이게 해 주었으며 한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전혀 다른 차원의 감사를 묵상하게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그리움의 대상이 되어버린 교우들과의 만남이 설레임으로 귀하게 다가오던 순간은 오래토록 기억속에 자리할듯 싶다 그리고 긴 절망의 끝에서 우리는 드디어 소망과 감사를 구별해내며 불안과 원망과 불평보다는 두고두고 기도 해야하는 일만을 남겨 두어야하지 않을까? 어려운 여건 가운데에서도 주안에신문이 2021년 한 해동안 한달도 쉬지않고 발행을 할 수 있도록, 수많은 간증과 소감문과 뉴스기사로 또한 사진 촬영으로 함께 해주신 모든 교우분들과 사역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주안에신문 2021년 송년호(88호)를 마감한다.

| 오희경 기자 |

'주안에' 는 교우 모두가 참여하여 만드는 뉴스레터 입니다. 목장, 사역팀 소식을 비롯, 간증과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까지 함께 나누고 싶은 글을 많이 보내주세요. icccnews123@gmail.com

발행처: 주안에교회 문서사역국 / **문서사역국 명단:** 오희경(국장). 나형철. 류명수. 모니카 김. 양하민. 이성은. 이에스더. 조 사이먼. 조용대(기자) / 양영. 박민, Paul Yang (사진)

편집디자인: 김윤영